

2012년 국제원자재시장 전망

2011. 12. 9

< 목 차 >

I. '11년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 1

(참고)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 차트 2

II. '12년 부문별 전망

1. 원유시장 3

2. 농산물시장 6

3. 기초금속시장 8

III. 종합평가 10

국 제 금 융 센 터

I

'11년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

- (원자재 지수) CRB 지수, 前强後弱 패턴 속 금년 5.7% 하락(~11/30일)
- 4월까지 11.3% 상승했으나 이후 유럽 재정위기 및 주요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약세 전환되며 5~11월에는 15.3% 하락
- (원유) 두바이유 가격, 4/28일 119.51달러(연중 최고)를 정점으로 상승세가 꺾이며 최근 100~110달러 박스권 움직임
- 1~4월 중 34% 상승했으나 5~11월 중에는 8.2% 하락(금년 23% 상승)
 - 한편 WTI의 상대적 약세 최근 다소 완화(브렌트-WTI 가격차이 10/14일 27.88달러→최근 10달러 내외로 축소)

<표> 국제유가 추이(평균)

(\$/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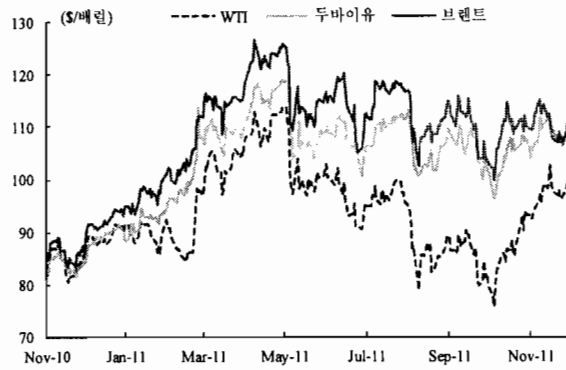
	'08년	'09년	'10년	'11년	'11. 1Q	2Q	3Q	4Q
두바이	93.71	61.94	78.10	106.08	100.48	110.63	106.91	106.25
브렌트	98.52	62.67	80.29	111.25	105.52	117.09	112.09	109.66
WTI	99.71	62.00	79.55	94.82	94.42	102.47	89.57	91.90

주: '11년은 11/30일까지

- (농산물) 하반기 들어 조정세 이어지는 가운데 9월 이후 낙폭 확대
- 러시아 수출 재개(7월)로 특히 소맥의 하락세(금년 -25%)가 두드러졌으며, 옥수수(-4.4%) 및 대두(-18.8%)도 하락
 - 면화(-37.6%), 설탕(-26.2%), 커피(-2.8%) 등 Soft 품목도 하락
- (기초금속) 상반기 중 '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후 일제히 하락 전환
- 경기에 민감한 특성상 하반기 이후 낙폭 확대, 변동성도 증대
 - 구리(금년 -17.9%), 알루미늄(-14.6%), 니켈(-29.3%), 납(-17.3%), 아연(-15.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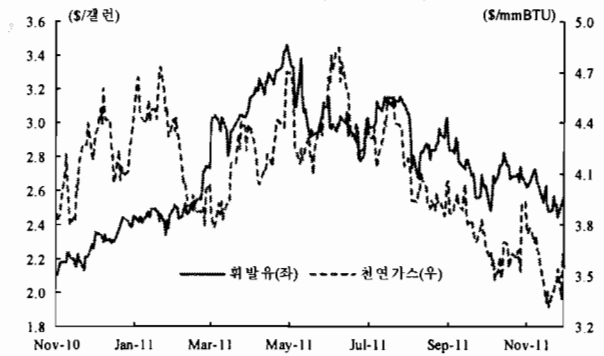
(참고)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 차트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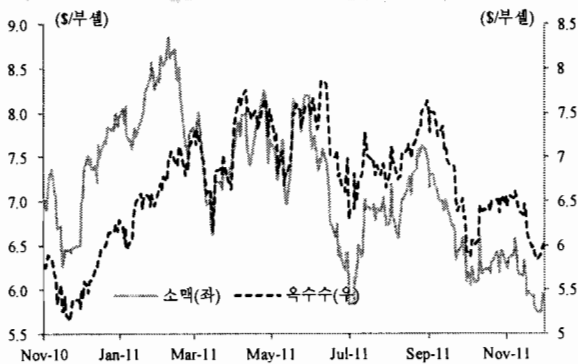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휘발유 및 천연가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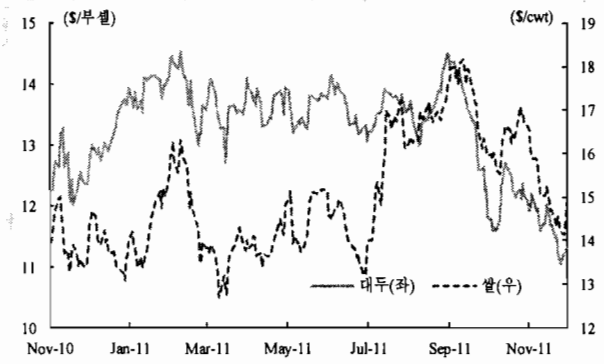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소맥 및 옥수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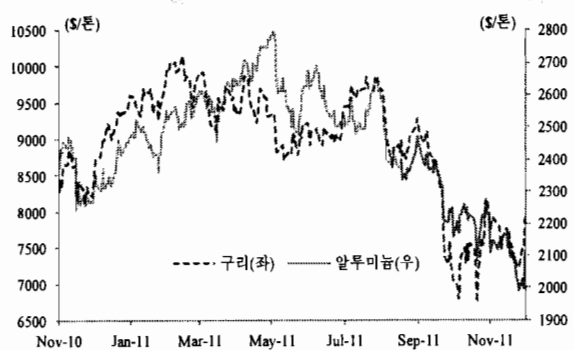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두 및 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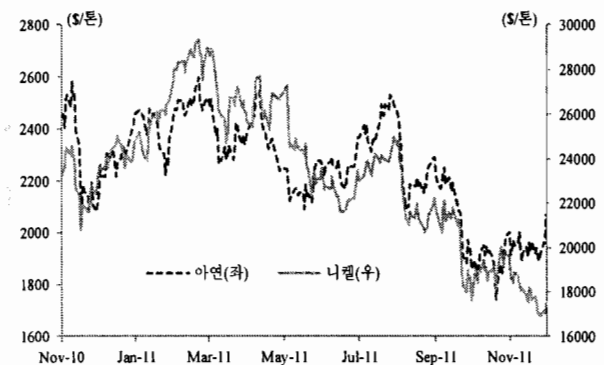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구리 및 알루미늄 가격>



자료 Bloomberg

<아연 및 니켈 가격>



자료: Bloomberg

1. 원유시장

□(수급) 신흥국의 견조한 수요가 선진국 저조를 상쇄하며 '12년에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타이트한 수급상황 이어질 전망

○ IEA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전세계 원유수요를 금년보다 하루 100~140만 배럴(+1.4~1.6%) 늘어난 9,000만 배럴 내외로 전망

- OECD 수요 위축 불구 비OECD 수요가 중국, 인도 및 중동을 중심으로 증가세 이어갈 전망

* 전체 수요 중 OECD 비중 '00년 62.5%→'10년 53%로 축소, '12년 50.9% 전망(EIA)

- 다만, 유럽 위기 심화 및 경기침체 등 상황 악화 시 수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상기 전망은 IMF 등의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 3~4% 전제)

○ 공급은 캐나다 및 카자흐스탄, 미국 등 비OPEC 생산이 하루 110만 배럴 정도(+2%) 증가 예상

- OPEC 공급은 리비아 생산재개(10월 하루 35만 배럴, 내전 이전 하루 160만 배럴)와 사우디 등의 증산 중단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 EIA는 OPEC을 포함한 전세계 공급이 내년 하루 8,930만 배럴(+1.9%)로 수요에 비해 약 30만 배럴 부족할 것으로 전망

<주요 기관 전세계 원유수급 전망>

(하루 백만 배럴)

		'10년	'11년(f)	'12년(f)	'12년(f)			
					1Q	2Q	3Q	4Q
수요	IEA	88.30	89.20	90.50	90.20	89.40	90.90	91.40
	EIA	87.06	88.23	89.62	89.01	88.80	90.08	90.58
	OPEC	86.90	87.80	89.00	88.70	87.40	89.50	90.30
공급	IEA	87.40	-	-	-	-	-	-
	EIA	86.92	87.70	89.34	89.07	89.29	89.39	89.62
	OPEC	86.40	-	-	-	-	-	-
과부족(EIA)		-0.14	-0.53	-0.28	+0.06	+0.49	-0.69	-0.96

주: IEA 및 OPEC은 비OPEC 생산만 전망

□ (기타요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각국 전략비축유 확대, 투자자금 동향 등

○ IAEA의 이란 핵 개발 보고서 발표(11/8일) 이후 이란과 서방국 간 긴장 점증, 향후 공급불안 요인으로 작용 우려

- 이란과 서방국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이란의 원유 생산량(10년 하루 370만 배럴, 세계 5위) 등을 감안하면 동 지역에서의 긴장이 고조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IEA의 전략비축유(SPR) 방출 결정(6월)으로 미국의 SPR 7월 7.26억 배럴에서 11월초 6.96억 배럴로 감소, 다른 회원국들의 SPR도 감소

- 이에 따라 내년에는 각국이 이를 다시 채워 넣는 작업을 진행할 전망
- 중국은 SPR을 내년말 1.5억 배럴(현재보다 +4천만 배럴), 장기적 5억 배럴로 늘릴 계획, 인도 역시 내년말 SPR 4천만 배럴(현재 980만 배럴)을 계획하는 등 신흥국들의 SPR 확대 노력도 지속될 전망(FT)

○ 원유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자금 최근 2개 분기 연속 유출,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을 전망

- 인덱스펀드 등으로의 투자자금은 금년 1분기 70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나 2분기 및 3분기에는 각각 23억 달러와 26억 달러 유출(Barclays)
- NYMEX 원유 선물옵션 투기 순매수포지션은 3/8일 34.8만 계약을 정점으로 6월말에는 17.6만 계약으로 축소, 이후 최근까지 18~22만 계약 유지

<원유 등 에너지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 추이(Barclays)>

(억 달러)

	'07년	'08년	'09년	'10년	'11. 1Q	2Q	3Q
에너지	37	54	272	197	70	Δ23	Δ26

□ (전망) '12년 국제유가는 상반기에는 조정국면을 보이다가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전망

- 유럽 재정위기 및 경기 우려, 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금년 하반기 대비 개선된 수급여건 등으로 상반기에는 소폭 하락 전망 우세
 - 일부에서는 유럽 위기의 중심국 확산 등 최악의 시나리오 전제 하에 브렌트유가 70~80달러(BoA-ML, Morgan Stanley)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
 - 반면 이란 핵 개발 관련 긴장 고조 시 유가 급등 우려도 존재(전세계 해상 물동량의 1/3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
- 하반기에는 유럽 및 경기 불확실성의 완화 등으로 유가가 상반기 대비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
 - 주요 IB들은 내년 브렌트 평균 가격을 100~120달러로 전망

<주요 IB들의 국제유가 전망>

(\$/배럴)

	유종	'10년	'11년	'12년	'12년			
					1Q	2Q	3Q	4Q
주요 IB	WTI	79.55	94.82	99.50	91.72	98.13	101.00	106.88
평균	브렌트	80.29	111.25	113.17	109.38	112.50	113.22	117.72

주: '11년은 11/30일까지. Goldman Sachs, JP Morgan, Barclays, Deutsche Bank, Societe Generale, BoA-ML 등 6개 IB 평균

2. 농산물시장

□ (수급) '11/'12년 전세계 곡물 수급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소비가 생산을 초과하나 수급차는 예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

○ 미국 농무부는 '11/'12년 전세계 곡물생산을 22.80억 톤(전년 대비 +3.6%), 소비는 22.84억 톤(+2.5%)으로 각각 전망

○ 품목별로, 옥수수과 대두의 수급여건은 계속 타이트한 반면 소맥 수급은 다소 개선될 전망

- '11/'12년 전세계 옥수수 수급은 중국 및 멕시코 소비증가로 747만 톤 소비초과 전망(재고율 '09/'10년 17.5%→'10/'11년 15.3%→'11/'12년 14%)

- 대두 수급도 미국, 브라질, 중국 등의 생산 감소로 212만 톤 소비초과가 예상되며 재고율은 '10/'11년 27.2%에서 '11/'12년에는 24.3%로 낮아질 전망

- 반면 소맥 수급은 러시아 생산 큰 폭 증가 등으로 전세계 생산이 5.3% 늘어나며 647만 톤 생산초과 전망

<전세계 곡물 수급 전망>

(억 톤)

	'08/'09	'09/'10	'10/'11(e)	'11/'12(f)
소비(A)	21.58	22.03	22.29	22.84
생산(B)	22.40	22.41	22.00	22.80
수급차(B-A)	0.82	0.38	Δ0.29	Δ0.04
재고(재고율)	4.54(21.0%)	4.91(22.3%)	4.62(20.7%)	4.58(20.1%)

자료: 美 농무부

□ (기타요인) 이상기후 가능성, 중국 재고 확대 가능성, 투자자금 동향 등

○ 적도 중앙 및 동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 현상이 8월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북반구 겨울 내내 지속될 전망(NOAA)

- 라니냐는 지역별로 대류변화를 통해 가뭄, 홍수(폭설), 추위 등 이상기후를 초래하여 주요 곡창지대의 농산물 작황에 큰 타격

- 중국, 경기둔화 여부에 상관 없이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주요 곡물의 재고 확대 노력을 지속할 전망(Rabobank)
 - '11/'12년 옥수수 수입은 300만 톤으로 '94/'95년 이후 최대를 기록할 전망, 대두 수입도 전년보다 7.9% 증가한 5,650만 톤에 달할 전망(美 농무부)
- 농산물 부문에 대한 투자자금, 2~3분기 중 46억 달러 유출, CBOT 옥수수 및 대두, 소맥의 투기 순매수포지션도 최근 큰 폭 축소
 - 유럽 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적극적 유입세로 전환되기 어려울 전망

<농산물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 추이(Barclays)>

(억 달러)

	'07년	'08년	'09년	'10년	'11. 1Q	2Q	3Q
농산물	34	5	150	150	78	Δ23	Δ23

□ (전망) 타이트한 수급여건 지속으로 내년에도 주요 곡물가격은 전반적으로 고수준을 유지하겠으나 경기둔화 우려, 가격 고평가 인식, 수급차 축소 등으로 금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하향안정세를 나타낼 전망

- 재고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후변화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Weather Market 양상이 강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FAO)

<주요 IB들의 곡물가격 전망>

(cents/부셀)

		'10년	'11년	'12년	'12년			
					1Q	2Q	3Q	4Q
주요 IB 평균	옥수수	428.1	687.2	639.0	692.7	691.7	631.7	591.7
	대두	1,049.3	1,334.0	1,313.3	1,331.7	1,328.3	1,290.0	1,253.3
	소맥	582.1	718.2	708.0	750.0	738.3	665.0	691.7

주: '11년은 11/30일까지 평균. 주요 IB는 Barclays, JP Morgan, Morgan Stanley, Deutsche Bank

3. 기초금속시장

□ (수급)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경기저조에 따른 수요둔화로 금년에 비해 수급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

○ 알루미늄 수급은 중국 등의 수요둔화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공급초과(각각 77.3만 톤 및 62.5만 톤)를 이어갈 전망

- 납, 니켈, 아연 등도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며 공급초과를 나타낼 전망(니켈은 금년 3천 톤 공급부족에서 내년 3.7만 톤 공급초과로 전환)

- 구리 수급은 주요 광산 파업으로 최근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내년에도 공급부족 예상(다만 공급부족 폭은 53.6만 톤에서 23.4만 톤으로 축소)

○ 유럽 재정위기 심화 및 경기위축 시 수요 전망 하향조정 가능성 상존

- 세계 성장률이 1%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구리 수요는 감소세로 전환되고, 다른 품목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Barclays)

□ (기타요인) 투자심리 위축, 중국의 재고 재구축(restocking) 등

○ 세계 최대 소비국인 중국(세계 수요의 약 40% 차지)의 경착륙 우려가 대두되며 기초금속에 대한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

- Comex 구리 선물옵션의 투기 순매수포지션, 8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9월 중순 이후에는 (-)로 전환

- 인덱스 펀드 등으로의 투자자금도 1분기 28억 달러 유입에서 2~3분기에 14억 달러 유출로 전환

<기초금속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 추이(Barclays)>

(억 달러)

	'07년	'08년	'09년	'10년	'11. 1Q	2Q	3Q
기초금속	17	10	51	38	28	Δ5	Δ9

○ 최근 기초금속 가격 하락으로 중국은 그동안의 재고 축소(destocking)를 중단하고 재고 재구축(restocking)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Citi)

- 중국의 재고 재구축은 국내 수급안정 및 가격 급등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가격이 급락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재고 확보에 나선 바 있음

□ (전망) 다른 원자재에 비해 경기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특성 상 기초 금속 가격은 상반기까지 최근의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전망

○ 유럽 상황 악화 및 주요국 경기악화 시 '08/'09년과 같은 수요급감(demand destruction)으로 가격의 큰 폭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 가격 하락 시 생산업체들의 감산 및 중국의 재고 재구축,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저가 매수세 등이 가격하락을 제한할 가능성

<주요 IB들의 기초금속가격 전망>

(\$/톤)

		'10년	'11년	'12년	'12년			
					1Q	2Q	3Q	4Q
주요 IB 평균	구리	7,555.5	8,936.5	8,854.2	8,450	8,920	9,360	9,050
	알루미늄	2,199.1	2,456.8	2,432.3	2,330	2,430	2,498	2,567
	니켈	21,866.6	23,278.9	21,041.7	20,210	20,960	21,280	20,950
	납	2,169.8	2,420.6	2,401.4	2,251	2,374	2,460	2,520

주: '11년은 11/30일까지 평균. 주요 IB는 Barclays, JP Morgan, Morgan Stanley, Deutsche Bank, Societe Generale, BNP Paribas

III

종합평가

- 국제원자재 가격은 '12년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조정국면이 이어지겠으나 하반기 들어 세계경기 회복과 함께 강세를 보일 전망
- 많은 불확실성(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 위기,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위 아래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가격 급등락 현상이 빈발할 경우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가능성
- 자원민족주의 강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 원자재 수급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자원부국들이 수출을 제한하는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경향
 -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러시아 등 구소련 연방국들의 '10년 하반기 ~'11년 상반기 중 곡물 수출금지, 세계 최대 주석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최근 동 품목 수출금지 등
 - 중국, 인도 등의 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재고 비축 노력을 참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